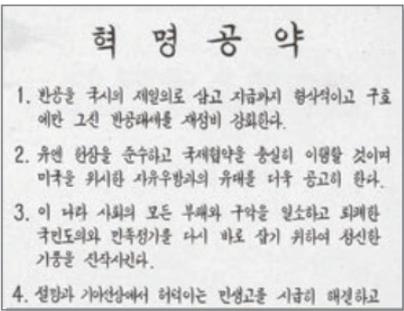


### 박정희 사상 의혹 씻어낸 '반공 국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로 삼는다’. 1961년 5·16 거사 때 발표한 이 ‘혁명공약’(사진) 제1항은 박정희 소장에게 쏠린 좌익 의

혹을 씻기 위해 썼다는 사실이 김종필 증언록을 통해 드러났다. JP는 혁명공약의 작성자다. 그는 “박정희 장군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사상 의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식하기 위해 반공국시를 첫 번째로 집어넣었다”고 회고했다. 이 공약을 처음 읽은 박정희 소장은 “이거(제1항) 나 때문에 썼구면”이라고 반응했다. 이는 박정희 시대 역사의 새롭고 흥미로운 진실이다.

‘혁명공약’의 마지막은 원대복귀다.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제6항은 박정희 소장이 추가한 것이다. JP는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말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2015년 3월 3일자 4면>

### 박정희 권력의지 약해 JP, 장도영 거세

“5·16 혁명 직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의지가 약했

어. ‘나 그만두겠다, 군으로 복귀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 박정희의 권력 이미지는 냉혹하다. 1970년대 후반 유신독재 시대 때문이다. JP의 증언은 박정희 권력의 인상을 깬다. 5·16 세력은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중장·사진 오른쪽)을 최고회의 의장으로 올렸다. 부의장은 박정희 소장. 5·16 두 달 뒤 장도영은 체포됐다. 그것은 중앙정보부장 JP의 독단적 결행이었다. JP는 “내가 장도영의 체포 사실을 보고하자 박정희 장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기억했다.

JP는 “장도영은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어. 그것이 5·16 주체 세력의 내분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해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장도영 제거는 박정희의 군 복귀 퇴로를 막았다. “박 대통령의 약한 권력 의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그가 권력에 자신감을 가진 시점은 60년대 후반부터다. <4월 6일자 6면>



### 황태성, 밀사 아닌 김일성이 보낸 간첩



북한 무역성 부상 출신인 황태성(사진)은 1961년 8월 말 납 파됐다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됐다. 그는 “나는 김일성이 보낸 밀사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김종필 정보부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희는 셋째 형(박상희)의 친구인 황태성을 어릴 적부터 “형님”이라 부르며 잘 따랐다. JP는 “황태성의 체포 사실을 전하자 박 의장의 얼굴이 새 하얘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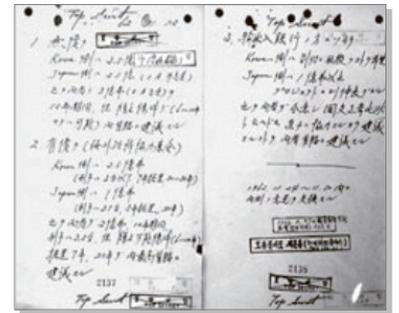
JP는 “황은 밀사가 아니라 큰 간첩이었다. 김일성은 나와 박 의장을 만나 북한에 합류하도록 설득 공작을 해보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했다. 미국 측의 요구로 황태성의 신병을 미 CIA(중앙정보국)에 넘겼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JP는 “미국은 황과 박 의장의 관계를 의심하고 조사를 질질 끌었다. 대선에서 졌다면 이를 문제 삼아 결판내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황태성의 신병을 돌려줬고 63년 12월 14일 사형이 집행됐다. <4월 22일자 6면>

### 김·오히라 메모 진본은 손바닥 크기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정보부장은 오히라 일본 외상과 대일 청구권(請求權) 자금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두 사

람은 이 내용을 메모지에 각각 써서 남겼다. 이튿날 JP는 박정희 의장에게 내용을 보고한 뒤 배석한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43년 뒤인 2005년 외교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비밀 외교문서엔 청구권 자금 액수와 조건이 적힌 2쪽짜리 A4크기 서류(사진)가 있었다.

‘Top Secret’이란 영어 제목과 함께 ‘오히라 외상이 (JP에게) 각 문제 토의 때 설명한 별첨 메모’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이 서류는 ‘김-오히라 메모의 원본’이라고 보도됐다. 이 서류는 김종필-오히라 회담 때 작성된 메모로 간주됐다. 하지만 JP는 “이 문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김-오히라 메모지는 손바닥만 하다. 한글과 한자만 있다”고 증언했다. 메모의 진본은 관리 소홀로 사라졌나, 아니면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 <5월 4일자 6면>



### 독도 폭파론 · 밀약설은 실체없는 주장



독도 폭파론은 박정희·김종필 반대 세력의 단골 메뉴다. 오히라 외상과 회담 중 JP가 “독도가 문제 되면 폭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오히라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제안하자 JP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독도를 폭파하면 했지 당신네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에 독도를 넘겨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도밀약설’도 JP는 부정했다. 독도밀약설은 65년 정일권 총리가 ‘독도를 미해결 상태로 놔두자’

는 밀약문을 일본 정부와 비밀리에 작성해 박정희의 승인을 받았고 이 문서를 JP의 셋째 형 김종락씨가 지니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JP는 “밀약, 밀약문은 없었다. 정일권 총리가 일본 측 생각을 전한 것이 밀약설로 부풀려진 것이다. 종락 형님도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5월 4일자 6면>

### 박정희는 이승만의 한국을 추진했다



이승만(오른쪽 둘째) 전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 하와이에 머물렀다. 62년 11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중앙정보부장 JP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우남(霧南)을 뵙고, 돌아오시겠다고 하면 정중히 모셔라-.”

JP는 호놀룰루 요양원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박 의장이 내어준 2만 달러를 전해 드렸는데, 파란 눈에서 눈물을 떨어뜨렸어. 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나빠 한국이 불발됐지.” JP는 “그런데 박 대통령이 한국을 막았다고, 거짓이야”라고 했다.

당시 외무부 기획조정관이던 김영주씨는 “62년 3월 박 의장의 전화를 내가 직접 받았어요. 귀국 시기는 정부와 협의하라고 했을 뿐 이 박사 귀국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박 의장의 전화 지시는 이행 과정에서 “이 박사의 귀국은 안 된다”는 것으로 변질, 과장된다. <7월 17일자 12면>

### 김재규 ‘민주투사’는 각색·조작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 김재규(사진)는 재판에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그는 ‘민주투사론’을 자임했다.

JP는 김재규를 ‘발작증 환자’로 규정하고 그 사례를 들었다. “김재규는 경호실장 차지철과의 충성 경쟁에서 패했고 발작증이 도져 총을 쏜 것”이라고 했다. 79년 10·26 그날 밤 현장에 동석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으로부터 사건 전말을 들었다. “김계원씨는 김재규의 발작 과정을 소상히 이야기해 줬어. 그 후에 그는 내게 한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어.”

78년 2월 김재규는 JP에게 “중앙정보부는 앞으로 박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모시는 임무에 기능과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JP는 “종신 대통령을 거론한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운운했는데 말이 되느냐. 더구나 그는 권총에 총알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도 몰랐어”라고 했다.

<8월 5일자 12면>

### DJ 납치는 이후락의 권력 처세술

73년 8월 도쿄에서의 김대중(DJ·사진) 납치사건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소행이다. 왜 이후락은 DJ를 납치했는가.

김종필은 이를 “이후락의 죽을 피”라고 했다. “이후락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일을 꾸며서 권력의 존재감을 유지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이후락은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73년 1월에 터진 윤필용 사건에 이후락은 연루된다. 이 사건으로 이후락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잃었다.



JP는 “윤필용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이후락이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꾸며 재간을 부린 것이 DJ 납치사건”이라고 했다. JP는 당시 국무총리였다. JP는 박 대통령이 “이후락 그 자가 서울에 김대중을 데려다 놓은 뒤에야, 나한테 보고를 하잖아. 나한테 한마디도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7월13일자 12면>

### 차지철 경호실장, 육영수의 유작인 셈



74년 8월 15일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숨진다. 재일 동포 문세광의 총에 맞았다.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는 인책됐다. 후임

에 차지철(사진 오른쪽) 당시 공화당 의원이 기용됐다. 당초 물망에 오른 사람은 오정근 의원이다. JP는 “박 대통령이 후임에 누가 좋으냐고 물어 오정근을 추천하자 박 대통령도 흔쾌히 좋다고 했다. 그런데 밤사이에 차지철로 바뀌어.” 그것은 미스터리다.

JP는 “생전에 육 여사가 입버릇처럼 차 의원을 써보라고 박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술·담배를 안 하고 고지식하고

독실한 신자라는 게 육 여사의 차지철에 대한 평가였어. 혼자 잠자리에 든 박 대통령은 육 여사의 그 말이 생각나 차지철을 쓴 게지.” 그는 “박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을 스캔들 없이 스스로 단속하기 위해 차지철을 기용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라고 했다. 차지철 인사는 육 여사의 유작(遺作)인 셈이었다. <7월 22일자 12면>

### 박정희 기념관은 DJP 해원의 산물

97년 대선에서 김대중(DJ)의 당선은 DJP 공조의 산물이다. 그 공조는 역사의 흐름을 꺾었다. 박정희 시대에 DJ는 정적(政敵)이었고 충돌했다. DJ는 민주화 세력의 간판이다. JP는 산업화 세력의 상징이다. 정치 역정에서 ‘적과 동지’는 어떻게 합했을까. JP는 “대선 두 달 전에 DJ가 우리 집에 찾아왔지. 나는 ‘박 대통령 시대에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었는데 그것을 내가 씻어드리고 도와주겠다’고 했지.” JP는 그것을 역사의 해원(解冤)으로 설명하면서 “나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다. JP는 내각제 개헌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요청했다. DJ는 집권 후 기념관 약속을 실천했다. 박정희 기념관은 DJ 시절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노무현 정권 때 건립이 연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완공된 기념관은 DJP 통합 정신의 산물이다. <10월 23일자 12면>

